

“기독교 분쟁 중재기구 필요 ”



본지는 한국기독교개혁운동(이하 한기운)의 출범에 맞춰 한국교회 지도급 인사들과 평신도간의 대화를 통해 한기운의 출범 의의에 대해 고찰하는 한편 한기운과 한국교회의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 있다.

한기운 공동대표 김진홍 목사(두레교회)와 손봉호 총장(동덕여대)에 이어 이번호에는 신실한 기독교인 학자로 알려져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균성 법과대교수를 찾아 대담을 나눴다.

대담자 - 심종석 교수(남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본보 객원논설위원)

▶심종석 =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를 대신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대담이 한국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말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를 가져 봅니다.

우선 교수님께서서는 전공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심에 있어 학계는 물론 교계로부터도 각별한 존경과 관심을 받고 계십니다.

대담에 앞서 본지에서는 이전에 김진홍 목사님과 손봉호 총장님과의 대담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쇄신과 화합을 위한 ‘한국기독교개혁운동(한기운)’에 관한 대담 기사를 다룬 바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기운의 출범취지 내지는 기대에 대해서 평해주신다면?

▶이균성 교수 = 먼저 크리스천투데이에서 부족한 이 사람을 대담 상대로 인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개혁운동(이하 한기운)의 출범에 대해서는, 이런 운동이나 단체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 기독교 현실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님께서도 그 충정을 이해하시고 한기운을 주님의 도구로 크게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한기운에는 평소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존경해 온 여러 교계 지도자분들이 이 단체를 결성하여 십자가를 메고 앞장설 각오를 하고 있으시므로 든든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한기운을 마지막으로 하여 앞으로는 이런 단체가 더 이상 없어도 되고 또 하루속히 그 소명을 다하고 사라져도 될 만큼 우리 기독교계가 정화되고 화합하여 그리스천 한사람, 한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심 = 현재 한국교회는 일련의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곧 한국교회는 국민적 신뢰를 받기에 마땅한 기독교적 사회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서 일탈하여 사회로부터 근심어린 비판과 지탄을 받고 있는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할 수 있겠는데요. 이 같은 시각에서라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 참 어려운 물음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와 기독교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독교인 중에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음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빛나는 보석같은 존재들이 많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죄가 관영한 이 나라가 심판을 받지 않고 그런대로 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 같은 부족한 죄인도 거기에 편승하여 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큰 교회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대로 좋은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소위 대형교회나 내로라하는 교계 지도자의 불미스러운 문제가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만 보고 교회의 장래에 문제가 있지 않나하고 안타까워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에는 그야말로 척박한 현실에서 손으로, 발로, 눈물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명하신 분부를 준행해 나가고 있는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교리나 교회 건물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추하고 죄많은 삶의 현장에서 눈물겹게 그리스도의 삶을 온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나 문제를 가리키려고 하는 손가락이 문제이지, 비록 이들의 손이 연약하고 의로운 발자국이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한결같이 복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심 = 그러면 교수님은 우리나라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또는 문제가 있기는 있어도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 = 글썄요. 문제도 문제 나뉘이겠지만, 너무 큰 소리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 내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말입니다.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별로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지만, 어쩌다 사람이 개를 물었다 하면 요란스럽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또 그렇다고 하고 싶고 그렇게 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유하자면, 밥에 아무리 돌이 많아도 역시 쌀이 훨씬 많듯이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돌 하나라도 씹으면 밥맛 전체가 떨어지고 밥그릇을 팽개치고 싶은 마음이 잠깐 들기는 하지요. 우리 교회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격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장난이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기독교의 문제는 예수를 잘 모르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공로로 구원 받아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흉내내고 닮아가도록 끈질기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육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민에게 구원의 탄탄대로를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한편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십자가에 못박히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에서의 삶을 통해, 특히 공생애 3년간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제일 낮고 비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하고, 제일 가난하고 무지몽매하다는 평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크리스천이어야 한다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가장 먼저 희생되고 가장 앞장서서 죽어야 될 사람은 예수쟁이어야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물정을 모르고 비천해도, 연약하고 파리목숨의 처지에 있어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사람 한사람을 천하와도 바꾸지 않으실 지극히 존귀한 존재들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기독교인이 각자 그 존재 의미를 늘 마음에 새기고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살아가는 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교회 지도자들은 이를 명심하고 제일 앞장서 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제대로 안될 때 문제로 비치고 기독교 불신으로 연결됩니다.

▶심 =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자세를 취하기가 지극히 어려우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도 소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으면 안 믿을 때보다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남보다 잘난 사람으로 출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 그런 태도를 부인하고 나무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신앙이 자라면 소위 가치관의 전환으로 바람직한 기독교인이 자연히 되겠지요. 그렇게 되자면 성령님께서도 도우시겠지만, 그래도 이 지상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대역이 되어 우리가 본받을 예수님의 참 모습을 순간 순간 보여줄 사람이 많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소위 교계의 지도적 지위에 있는 목사들이나 교회의 중직자로 있는 장로들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들이 문제의 키를 쥐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요.

아무튼,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서 평평거리고 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눈꼽만큼이라고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리 못해도 예수님을 유대 왕 하나 짊어지셨을 것이고, 머리 둘 데도 없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솔로몬이 누리던 부의 만분의 일의 재물이라도 소유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청빈만 강조하시고 모든 세상권력을 죄악시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庫)지기로서의 부자, 청(廳)지기로서의 권세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는 세상적으로는 가치관의 전도이지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올바른 주제 파악입니다.

▶심 = 현재 한국교회는 총체적인 위기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교수님도 시각을 같이 하고 계신 듯 합니다. 제 생각 또한 말씀하신 바에 비추어 교회분열 및 대립의 극한 상황이 당해 위기상황의 본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갈수록 양산되고 있는 지교회의 분열과 대립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자질과 능력의 결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의 이 같은 생각을 되짚어 주신다면?

▶이 = 저는 오늘날 교회의 분열이 기독교계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반드시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면서 살기 위한 방법이나 자세에 관해 고민하고 기도한 결과 서로 의견이나 강조점을 달리 판단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누어진 것이라면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으로 서로가 의견을 달리하면서도 그것을 은혜롭게 지양하고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공감대를 같이하는 여러 개

의 무리가 형성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핑계삼아 한 줄로 서서 일사분란하게 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사탄의 책동에 의한 교조적인 맹신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기주의적인 파당에 있습니다. 외람되이 있지도 않은 소위 교권을 내세워 기득의 지위를 고수하고자 새롭고 다양한 목소리를 묵살하려고 전가의 보도로 적그리스도니 이단이니 하고 내치니까 결국 분파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는 교회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앙자세의 문제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의 운영조직상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속을 그대로 닮아, 아니 세속의 교의를 출람하여, 권위주의가 팽배하고 계급화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가 실력이 모자라고 인격적으로 흠이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세속의 정치·사회 조직을 빼어 닮아서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권위에 가탁하여 이를 자기의 기득권으로 확립하고 그것을 지키기에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거나 상관없는 무리수를 서슴없이 구사함으로써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우리나라 기독교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가 정치·사회의 못된 풍조와 맞물려서 더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심 = 방금 권위주의, 또 계급화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의미합니까?

▶이 = 단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마치 신입교인보다 집사가 높고 집사보다는 권사나 장로가 높고 그 위에 목사가 제일 높다는 식으로 인식되어 있지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궁리해내었는지, 장로교의 경우 예컨대 제직회, 당회, 공동의회 같은 기관조직 말입니다. 이러한 조직 구성이 바로 근본문제의 모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서열화, 계급화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속의 고소등반의 본능이 작용하여 더 높은 데로 지향하고 그것을 권위와 명예로 고수하고 양보하고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도 장로 축에도 들지 못하는 명색만 장로이지만, 장로라는 용어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어린 「장」(長)자에다 늙을 「노」(老)자 붙은 명칭이라서, 연세불수의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르신 행세가 되었으니 그저 민망할 따름입니다. 제 기분같아서는 하나님의 종인 「천노」(天奴)나 「종놈」이어야 한다고 해야 하겠지만, 호칭은 본래 자기를 부르는 자칭이 아니라 주로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구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노」이니 「종놈」이니 하는 것도 어쩐지 적당한 칭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장로」는 하나님 앞에서 쓰기에 불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실이 중요하지 명칭이 무슨 문제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실이 중요하다면 그것에 걸맞는 명칭을 잘 궁리해 만들어 쓰도록 하는 것도 굳이 물리칠 일이 아니지 않을까요. 말이 좀 빗나지만, 세속의 일꾼들의 경우 「총장」, 「사무총장」 따위의 무시무시한 명칭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경우는 좀 달라야지요. 현직을 은퇴한 직분자의 경우 그 제도 자체도 문제이겠지만, 으름 「원」(元)자와 늙을 「노」(老)자를 덧붙여 「원로목사」나 「원로장로」니 하는 것도 제가 소심하고 하나님과 친근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소리가 나오면 공연히 움찔 죄스럽고 하나님 안전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심 =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보다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한국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재 교회법과 절차는 그 순

기능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보다 심하게는 그 한계상황을 넘어섰다고도 적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결과 교회 내 분쟁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의 법과 원칙이 우선되고 있다기 보다는 사회법의 강제와 그 권위에 의지하여 최종적인 해결책을 구하고 있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일각에서는 '기독중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시각과 주장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 교회는 신앙공동체로서 순수한 신앙과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실정법의 규율 밖이지만, 교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국가법 아래에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행정적 규제의 경우와 같은 공법(公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또 교인이나 교역자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아무리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이더라도 형사법(刑事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공법 또는 형사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에는 법원이나 국가기관을 통한 해결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 사회의 공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회 내부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련된 사적인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국가기관이 아닌 기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계에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정자나 중재재판 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헌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서 속속들이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각 교단이나 교파마다 인사상(人事上)의 사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는 설치되고 있으나, 재산관계의 분쟁은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사법적(私法的)인 분쟁을 일반 법원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교회 내의 치부를 드러내게 되고, 급기야는 기독교계 전체에 망신스러운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되는 일이므로, 어떻게 하든지 교회 밖으로 문제를 노출시키지 말자, 그러려면 가칭 「기독중재」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하고 관련하여, 부언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기구를 가진다고 하여도 우리 교계가 깨끗해져서 그 기구가 한 번도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심 = 화제를 바꾸어 볼까 합니다. 교수님께서도 한국외대기독교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원복음화의 시각에서 기독교수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 제가 봉직하고 있는 학교에 처음에는 교수와 직원, 그리고 각종 기독학생 동아리와 그 연합체가 각각 따로 따로 하나님을 섬기고 학원선교화를 담당해 왔던 것을 작년 9월에 기독교신우회로 통합하고 또 「외대교회」라는 간판의 학원선교 공동체를 발족시켰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외대선교센터/교회」라는 명칭으로 재편하여, 학원복음화와 함께, 해외에 파견될 선교사를 위한 현지의 언어와 지역사정에 대한 지식, 정보를 교육하는 일을 담당하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없지만, 구성원들이 애쓰고 열심히 기도해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충분히 한 몫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거기에 제가 비교적 나이든 한 사람으로 끼어 있을 뿐입니다. 저로서는 젊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성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삼가고 조심할 따름이지, 제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꿈 끝에도 내세울 수 없는 가당찮은 말씀입니다.

▶심 = 끝으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존경하고 계신 인물을 소개해 주시고, 그 인물을 통해 가슴에 두셨던 시사점을 통해 장차 우리의 사회와 교계를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남기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 굳이 거명을 하자면 순교목자 주기철 목사님과 용서의 사도 손양원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저로서는 주님의 삶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이러한 분들의 삶의 향내나마 맡아가면서 어렵פות이 주님을 알아 모시기라고 한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교계의 많은 훌륭한 어른들과 선배들이 계시고 또 제 개인적으로 연만하신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데 감히 말씀드리기가 죄스럽지만, 이제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눈꼽만큼이라도 덜 가리고 사느냐, 후배와 제자, 자식들에게 부담스럽고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느냐 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살고자 합니다.

스승을 존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오히려 부족한 저와 같은 무지렁이 선생과 부모한테 해당되는 가르침입니다. 제자와 자식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값비싸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존경을 받고 공경 대상이 될 수 있는 한 가닥 길이고, 스승을 존경하는 훌륭한 제자를 만들고 효도하는 자식을 세상에 남기는 비결이라고 봅니다.

더 욕심을 부린다면 만년의 톨스토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곱게 늙어가고, 그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진리와 세상 이치를 잘 깨닫고, 또한 톨스토이의 「성지순례」에 나오는 엘리사처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욕신의 성지순례보다 더 값진 성지순례를 날마다 하고 사는 멋진 순례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좌우명은 성경의 「시편」과 「잠언」, 「전도서」, 나아가 성경 전체에 다들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독교 청년학생들은 각자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로 각념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래야만 현대의 불확실한 혼돈의 세태를 살아나가는 데 삶이 형통하고 남의 머리가 되어도 항상 겸손하고 고난 중에서도 공물을 베풀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으로서는 덕을 닦는 데 노력하고 남은 용서의 상대로 삼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은 지식도 덕을 바탕으로 쌓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벧후 1:5). 채근담에서도 덕은 재능의 주인이므로 재능이 덕의 종이 되어야 하며(德者才之主 才者德之奴), 또한 덕은 모든 사업의 바탕(德者事業之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전집 139장.158장).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고 계십니다(마 18:21-22). 논어에서도 공자님에게 제자 자공이 ‘종신토록 새겨서 행할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것은 「용서」(恕)가 아닐까’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볼 때 사람의 도리와 됴됨이에 대한 생각은, 나아가 천지만물까지도 결코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진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이야말로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좌우명임에 대하여 마땅히 새삼 새삼 경외심을 더해가야 할 것입니다.

■ 이균성 교수

1941년 경남 함안에서 출생하여 부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법학분야 중에서도 해상법, 해상보험법, 미국 회사법, 기타 상법에 관한 독자적인 체계를 정립해왔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정대학장, 법과대학장을 지내고, 한국보험학회, 한국상법학회의 회장, 교통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등의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 안암동 소재 영암교회

의 장로로 시무하고 있으며, 연구실적으로는 『국제해상법연구』, 『신체계 상법』 등 10여권과 「한·미 주식회사법 비교연구」 기타 수백편의 논문이 있고, 「감 예찬」, 「아버이 같은 스승」 등 잔잔한 감동을 주는 여러 편의 수필도 있다.